

취임 2주년 장석웅 전남교육감 “혁신을 넘어 미래로”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 전남 미래교육’ 도약의지 천명 에듀테크 구축,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과제 제시

장석웅 전남남도교육감이 29일 오전 전남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념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 도약의지를 천명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유튜브 전남교육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금 교육현장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남은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미래 도약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전남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습자 친화형 원격수업 플랫폼을 완벽하고, 수업용 태블릿 PC와 노트북 보급, 온라인 학습카페와 수업 스튜디오 등 미래형 에듀테크 구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전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도 내놴다. △ 삶과 얽히 연계된 역량중심 교육과정 △ 작지만 강한 전남형 강소학교 육성 △ 포용과 공정의 책임교육 △ 학습중심 전남교육 전환 △ 자치와 협치의 전남교육 등이 그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 AI·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 작은학교 유형별 운영모델 창출 △ 보편적 생활·학습복지 확충 △ 전문적 학습공동체 일상화 △ 학부모·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학생의 올곧은 성장과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놓는 교육에 매진한 결과 현장에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었다.”고 술회했다.

우선, 학생과 교사가 교육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불필요한 관행과 전시성 사업들



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였고,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배움 조직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크게 늘려 전체 교사의 80%가 참여하도록 했다. 전남형 학생체험활동인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우도록 했고,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구축, 전남혁신형 기업맞춤(JOBS) 교육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길을 열어

줬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도내 모든 고등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9월 정부계획보다 2년 먼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읍 지역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감축했고, 기초학력 책임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전국 최초로 에듀택스를 도입해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와 협력해 22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3기에 불과하던 마을학교를 206개까지 늘려 ‘마을 속 학교, 학교 속 마을’을 구현했다. 또한, 도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교육참여위원회’를 전라남도도 22개 모든 시·군에 설치했고, 학부모지원 조례를 제정해 모든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년 간 이룬 이런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점을 보완해 아이들이 지식보다 삶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비록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변방이 갖는 역동성과 창조성을 발휘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선제적으로 열어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반드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환 기자



호남대, 光銀과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

3년간 1억5천만원 기금 출연...AI 특성화대학 구축 지원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가는 AI특성화대학 구축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6월 29일 오전 11시 호남대학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호남대학교에 출연키로 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협약식에서 “호남대학교가 AI융합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국내 대학 유일의 AI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호남대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데 감사드리며, AI 특성화대학 구축을 위한 연구와 장학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호남대학교는 총장 직속으로 AI교육과 마인드 확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AI 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교생 AI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AI기초융합 교양과목 개발 ▲각 전공 교육과정에 AI 교과목 의무 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융합)전공 개발 ▲AI 융합기술전문 토크콘서트 개최 ▲AI 융합교육을 선도할 AI교육센터 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1968년 설립 이래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지역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송종욱 은행장 취임 이후 저원가성 예금 증가 및 자산구조 개선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으로 당기순이익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광주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개발·운영

광주·전남 지역 대학 처음 내달 1일부터 시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코로나19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 직접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29일 광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은 하계방학 기간에 대면 강의가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우선 적용되며 2학기부터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해 등교 전 미리 자가진단을 실시,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자가진단 내용으로는 ▲열(37.5도 이

상) 또는 발열감 ▲기침 등 의심증상 ▲해외여행 유무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동거 가족 중 자가격리자 유무 등이며 총 5가지 질문 가운데 1개의 증상이 있을 시 학교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가진단 결과 출입이 불가한 학생과 교직원은 광주대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 및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광주대는 하계방학 기간 동안 각 건물마다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발열 검사소를 12군데로 확대 설치한다. 발열 체크에 이상이 없으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제한한다. 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일 소독방역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목포대 일자리센터, 지역청년 취업특강 운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대학일자리센터는 26일(금요일) 목포가톨릭대 간호학과 4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합격률 부르는 면접법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지역 청년 취업특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채용 면접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특강은 △면접 복장 △1분 자기소개 준비 방법 △면접 시 말투와 태도 △돌발상황 대처 방법 등 병원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